

“코로나 스트레스 풀며 힐링 만끽”

특별 개방된 용암길 첫날 탐방부터 문전성시
원시 그대로의 꽃자왈 주변 풍광에 연신 감탄

‘비밀의 숲’이라 불리는 거문오름 용암길이 그 웅장한 녹음을 드러냈다. 28일 개막한 제13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에서는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용암길이 행사 기간 동안 특별 개방됐다. 세계자연유산센터 탐방 안내소를 출발해 거문오름 정상까지 14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 ‘선혈굴’이라 불리는 독특한 꽃자왈 지형을 형성하고 만장굴, 김녕굴, 웅천동굴도 만들어냈다.

이날 탐방객들과 함께 3년 만에 개방된 용암길을 따라 걸으며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나무 데크로 잘 정비된 거문오름을 오르자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안개가 남아있어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탁 트인 시야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탐방이 절로 즐거워졌다.

용암길 입구는 울창한 꽃자왈이 감싸고 있어 입구부터 어두컴컴하다. 이끼가 많아 탐방에 주의해야 한다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용암길에 들어섰다.

탐방객들은 용암길 곳곳에 배치된 해설사들을 통해 선혈꽃자왈의 특성과 용암길의 유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탐방의 재미를 더했다.

제주시에서 왔다는 고영숙(68)씨는 “남동생, 율개와 함께 트레킹에 나섰다. 용암길은 처음인데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가족과 함께 ‘이런 길도 있구나’ 연신 감탄하며 즐겁게 걷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원시 그대로의 꽃자왈을 품은 용암길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얻고 있다는 부부 탐방객도 있었다. 청주에서 거문오름을 찾은 성지환(55)씨는 “아내와 함께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에 왔고 시간을 내서 탐방하고 있다”며 “꽃자왈이 정말 잘 보존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곳을 탐방할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쉬엄쉬엄 숲 속을 걷다 보니 벌써 선인동사거리에 도착했다. 초록의 나무 사이를 지나는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기분이었다.

제13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첫날인 28일에는 총 861명이 용암길과 태극길 탐방에 나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일대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김도영기자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첫날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들이 용암길을 걷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9일 금요일 음 7월 1일 (8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0%	
20%	성 산	10%	
0%	고 산	0%	
1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7/31℃
모레	☁	흐리고 비	27/32℃

맑음

제주도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1~33℃로 예상된다. 자외선지수가 매우높음까지 올라가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44	달뜨기 05:46
해질녘 19:37	달지기 20:18
물때 만조 10:52	간조 05:52
23:51	17:24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제5호 태풍 ‘송다’
제주 간접영향 ‘비’
30일부터 최대 80mm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 예정인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저압부는 29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예정이다. 최대풍속 초속 17m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 저압부를 태풍으로 칭한다.

제주와 최근접 시점은 서귀포시 30일 오후 8시, 제주시 30일 오후 9시로 예상됐다. 이때 세력은 중심기압 994hPa, 강풍반경 220km, 최대풍속 초속 21m로 전망됐지만, 제주는 강풍반경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30일 오후부터 제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31일까지 30~80mm의 비가 쏟아지겠다.

송은범기자



28일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막식이 열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꽃자왈 품은 ‘비밀의 숲’ 3년 만에 활짝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어제 개막
내달 1일까지 ‘치유의 시간’ 마련

3년간 굳게 닫혀 있던 제주의 신비한 자연이 활짝 열렸다.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혈2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기원제를 시작으로 11시 개막식이 열리며 거문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을 맞이했다. 개막식에 앞서 축하공연으로 선혈2리 거문오름 풍물단의 풍물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현길호 제주도의원, 강동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박두화 제주도의원,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오호선 조천읍장, 김보흥 조천읍 주민자치위원장, 김두환 조천읍 이장 단협위원장, 이상영 선혈2리장,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 강만생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만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거문오름이 가진 아름다움과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하며 “거문오름 비밀의 숲에서 3년 만에 열리는 국제트레킹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주의 신비를 간

직한 거문오름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홍보대사’ 위촉식도 개최됐다. 올해 홍보대사에는 로컬크리에이터 ‘제주미니’의 안재민 대표와 인기 유튜버 ‘인영 forever young’ 오인영씨가 각각 위촉됐다. 홍보대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을 홍보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 신효범씨는 “내년 행사에는 꼭 거문오름을 걸어보고 싶다”며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난 널 사랑해’ 등 열창해 탐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13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코스는 태극길(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코스·10km)과 용암길(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6km) 등 총 2곳이다. 태극길은 정상(1.8km·소요 1시간) 또는 분화구(5.5km·소요 2시간 30분), 능선(5km·소요 2시간) 코스로 탐방 가능하며, 태극길 분화구에선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와 함께 분화구 내를 돌며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탐방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1시로 탐방 전에 반드시 탐방안내소에서 사전 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상영 선혈2리 이장은 “3년 만에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재개되면서 마을 주민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거문오름이 위치한 선혈2리에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고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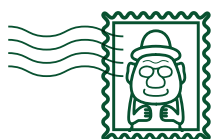
2022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주시농협



구입처

제주시농협 하나마트
제주점·노형점·오라점



· 제주점 729-1551
· 노형점 750-6500
· 오라점 747-6260

제주
레몬100
100% Fresh Jeju Lemon



이미지 사진

제주시농협 조합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상큼한 제주 레몬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른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레몬 100%를 이용한 착즙액입니다.

제주 자연에서 자란 레몬 100% 그대로 담은 제주레몬100을 더 맛있게 즐기는 TIP!

직접 음용, 레몬수(물), 레몬주(주류), 레몬에이드(탄산음료), 레몬드레싱 등



제주레몬 100은

제주시농협 레몬공동출하회 소속 조합원께서 생산한 레몬을 재료로 위탁생산업체(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생산하고, 제주시농협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